

PRESS RELEASE 보도자료

배포	2026.03.30(월)	홍보담당	최이나 차장 T. 010-3263-6201 E. choiina@hanwha.com
----	---------------	------	--

‘퐁피두센터 한화’ 6월 개관... 서울에 글로벌 문화예술 랜드마크 탄생

- 큐비즘으로 시작해 샤갈·마티스·브랑쿠시까지... 4년 전시 라인업 공개
- 63빌딩 별관 전면 리모델링, ‘빛의 상자’ 콘셉트 4층 규모 미술관으로 재탄생
-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피카소 제작 발레 무대막 최초 공개

한화문화재단과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파트너십으로 설립된 ‘퐁피두센터 한화’가 오는 6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개관한다. 미술관은 지난 2월 말 준공 이후 내부 인테리어 및 개관 준비를 거쳐 6월 4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퐁피두센터는 프랑스의 국립 근현대미술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파블로 피카소, 바실리 칸딘스키, 앙리 마티스, 마르크 샤갈, 소니아 들로네 등 모더니즘과 동시대 미술의 대표작을 포함한 방대한 컬렉션으로 잘 알려져 있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향후 4년간 퐁피두의 세계적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기획전을 연 2회씩 개최한다. 퐁피두 소장품 전시 이외에도 한국 및 글로벌 동시대 미술에 초점을 맞춘 자체 기획전을 연 2~3회 선보이며, 국제적 미술사 흐름과 오늘날의 담론을 한국의 문화적 맥락속에서 새롭게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혁신적 DNA를 공유하면서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컬렉션을 새롭게 해석하는 독자적인 미래형 미술관을 지향한다. 소장품을 전시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프랑스 공동 큐레이터십을 기반으로 연구·해석·교육 프로그램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관람객에게는 세계적인 아트 컬렉션과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국내 미술계에는 큐레토리얼 연구 기반 및 국제 네트워크를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서, 일상과 예술을 연결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퐁피두센터 한화’ 건물은 과거 아쿠아리움이 있던 63빌딩 별관을 전면 리모델링해, 각 500평 규모의 메인 전시실 2개를 갖춘 미술관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기존 구조를 과감히 비워내 낮에는

자연광이 깊숙이 스며들고, 밤에는 도심으로 빛이 퍼져 나가는 ‘빛의 상자’ 콘셉트를 건축적으로 구현했다. 외관은 63빌딩의 수직성과 대비되는 수평적 ‘빛의 띠’ 형태와, 전통 기와의 곡선을 연상시키는 반투명 이중유리 외피가 특징이다. 설계는 루브르박물관 리노베이션, 엘리제궁, 인천국제공항 프로젝트 등을 맡았던 프랑스 건축의 거장 장-미셸 빌모트가 담당했다.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피카소 제작 발레 무대막 공개

6월 4일 개막하는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The Cubists: Inventing Modern Vision)》은 20세기 미술의 전환점을 이룬 예술 운동 큐비즘(입체주의)에 주목한다. 모던아트의 새로운 시각을 연 큐비즘을 통해 퐁피두센터 한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퐁피두 소장품을 소개하는 단순 순회전이 아니라, 한국-프랑스 공동 큐레이터십을 통해 기획됐으며, 전시실 두개를 합쳐 총 1천평 공간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기획전이다.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페르낭 레제, 후안 그리스, 소니아 & 로베르 들로네 등 큐비즘 대표 작가를 비롯해 알베르 글레이즈, 아메데 오장팡, 나탈리아 곤차로바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작가들도 소개된다. 단순 유명작가 작품을 보여주는 나열식이 아닌 미술사적으로도 심도 깊게 접근해, 큐비즘의 탄생부터 확산, 국제적 전개에 이르는 과정을 연대기적 흐름 속에서 조망한다. 총 40여 명에 이르는 다양한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 90여 점을 8개 섹션으로 나눠 선보이며, 그동안 국내에 공개되지 않았던 흥미로운 작품들이 다수 포함된다. 특히 한국에 소개된 적 없던 피카소가 직접 제작한 대형 발레 무대막이 최초 공개돼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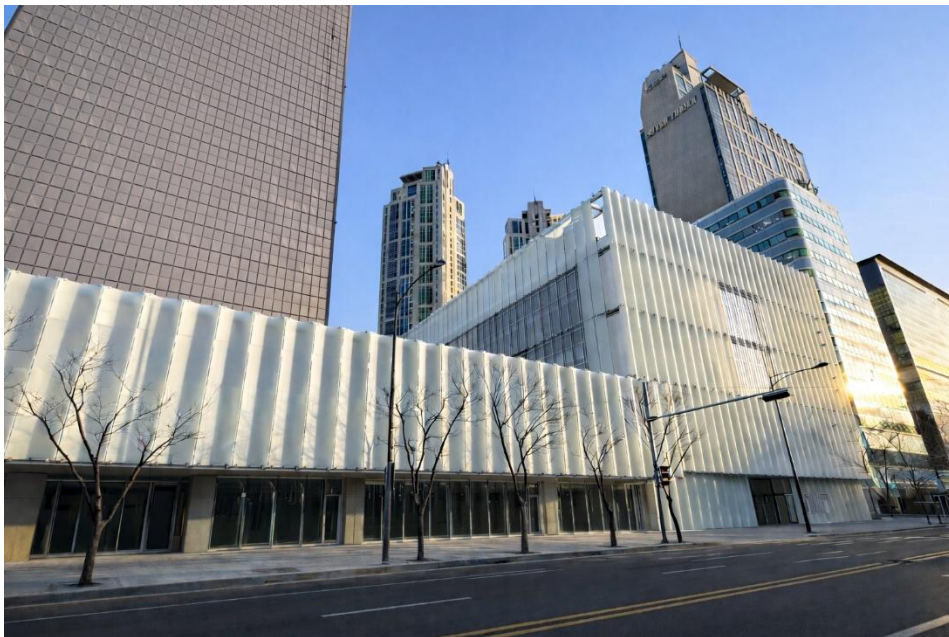
특별 섹션 ‘KOREA FOCUS’에서는 20세기 전반 한국 근대예술 형성 과정에서 파리가 지녔던 상징적, 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서구의 입체주의 사조와 당시 한국의 미술, 사진, 문학,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교차점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큐비즘 이후 아방가르드 운동이 한국 근현대미술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조명한다.

개관전 ‘큐비스트’에 이어 샤갈, 칸딘스키, 마티스, 브랑쿠시까지… 4년 전시 로드맵

퐁피두센터 한화는 개관 후 4년간 퐁피두센터 소장품에 기반한 20세기 모던아트의 주요 흐름을 조명하는 동시에, 아방가르드의 혁신성, 매체와 장르의 다양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미술의 새로운 시각을 연 입체주의(Cubism)를 시작으로, 이어서 ‘마르크 샤갈’, ‘바실리 칸딘스키’, ‘앙리 마티스와 야수주의’ 등 거장들의 전시가 2027년까지 이어진다. 이후, 초현실주의와 추상미술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미술사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던 여성 작가들도 전면에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추상 조각의 선구자로 불리는 콘스탄틴 브랑쿠시의 국내 첫 대규모 전시도 기획 중에 있다. 이밖에도 21세기 디지털·AI 혁명의 기원을 되짚는 초기 디지털 아트 등 폰피두 컬렉션의 대표작과 깊이 있는 해석이 결합된 수준 높은 전시 경험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시 로드맵을 바탕으로, 폰피두센터 한화는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세계 예술계를 잇는 문화적 가교로서 서울이 아시아 현대미술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프랑스 폰피두센터장 로랑 르봉은 “미술관은 단지 그 건물만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전 세계와 나눌 수 있는 정신과 가치, 전문성이 곧 미술관의 본질을 이룬다”면서 “폰피두센터 한화의 개관은 우리 미술관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역동적인 한국 문화예술 현장과 새로운 관람객을 만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화문화재단 이성수 이사장은 “폰피두센터 한화는 예술과 기술, 미래가 연결되는 열린 미술관으로서 서울의 일상 속에서 세계적인 아트 컬렉션과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재단의 뉴욕 전시공간 ‘스페이스 제로원’ 과 함께 한국 문화가 세계와 만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화문화재단 소개

한화문화재단은 2007년 한화그룹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예술가 지원과 한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세계 각국의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전시, 레지던시 지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진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고 국제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파리 폰피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2026년 여의도 63빌딩 별관에 ‘폰피두센터 한화(Centre Pompidou Hanwha)’을 개관할 예정이며, 폰피두 주요 소장품 전시와 함께 자체 기획전, 교육 및 공공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故 서영민 여사의 뜻을 이어받아 세계 유수 기관과 협력하는 ‘영민 해외 레지던시 지원 (Youngmin International Residency Grant)’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망한 한국 예술가들의 창작과 국제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뉴욕에 개관한 전시공간 ‘스페이스 제로원(Space ZeroOne)’을 통해 한국 동시대 작가들의 글로벌 진출과 예술 교류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 (프랑스) 폰피두센터 Centre Pompidou

1977년 개관 이래 폰피두센터는 도시에 깊이 뿌리내리면서도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역동적이고 실험적인 복합문화기관으로 자리해왔다. 2025년부터는 2030년 재개관까지 이어지는 리노베이션 기간에도 기관의 정체성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전환을 시작했다.

최근 15년간 폰피두센터는 순회전, 주요 소장품 대여, 장기적 협업을 통해 국제적 입지를 한층 강화해왔다. 이는 컬렉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예술 현장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프랑스 문화외교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 폰피두센터의 국제 확장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축으로, 2015년 말라가, 2019년 상하이에 이어 2026년에는 서울과 브뤼셀에 새로운 거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폰피두센터는 각 지역의 맥락에 맞춘 맞춤형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협업 모델을 통해, 예술과 뮤지엄 실천의 세계적 순환을 이끄는 주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